

90.3.30

“너희 같은 노동자 때문에 외국인 사장한테 같은 한국인으로 차별 못 살겠다”

22일, 한낮. 남산 순환도로 외국인 거주지에 자리한 ‘필립스’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 앞에서 8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다국적 기업 “필립스”와의 합작을 위해 그동안 피땀 흘려 기업을 키워 온 노동자 1백20명을 거리로 내몰고, 이에 항의해 자신들의 일터를 되찾으려는 “크라운 전자” 여성 노동자들에게 한국인 관리자가 내뱉은 말을 듣고 그동안 이들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온갖 폭력행위를 현장에서 보아온 기자는 아연해 질 수밖에 없었다.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하루 아침에 생계의 수단을 빼앗긴 여성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주

장을 하는데,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했을 뿐인데도 크라운 전자 관리자들은 우악스럽게 밀치는 것은 예상과 심지어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구로 1공단 크라운 전자 회장 윤봉수씨는 크라운 전자를 비롯

에 불안감을 조성, 그동안 1천2백여명의 자연감원을 추진해 온 이른바 ‘악덕 기업주’의 전형이다. 윤봉수 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1월29일, 퇴근 20분전에 2백60여명을 사전통고 없이 집단 해고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들 해고자 1백20명은 그때

로상에서 질끈 머리띠를 동여매고 “필립스사는 크라운전자 조합원 1백20명의 집단해고를 공동책임지고 안정된 일터를 보장하라!” “여자라고 갈보다간 큰코 다친다!”고 외치는 우리 여성노동자들. 남산에 쟁쟁 메아리 치는 여성 노동자의 외침에서 기자



취재수첩

이 나라 기업인이 ‘창피’를 느낀 까닭은?

(주)남성, 남성전기, 남지전자 등 4개의 회사를 소유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부가가치가 적은 사양산업에서 침전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구도 속에 남성전기, 남지전자, 크라운 전자 등에서 작가가 발생하도록 유도해 왔다. 나아가 갖은 수단을 다해 노동자들 사이

해고당한 2백60명중 끝까지 원직을 지키려 싸워왔던 노동자들로 이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피하는 필립스측의 의도는 이윤추구 하나를 위해 저임금을 찾아 떠도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 동물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봄벌 때사로운 남산 순환도

는 이 나라 기업인의 뿌리깊은 부도덕성과 오로지 초과노동의 착취만을 노리고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속성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 이런 모든 억압을 뚫고 봄날 새파랗게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터져나오는 노동자의 힘에 감동을 느꼈다.

(홍미숙 기자)

수배 기업주 노동자들이 검거

석달추적 호텔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

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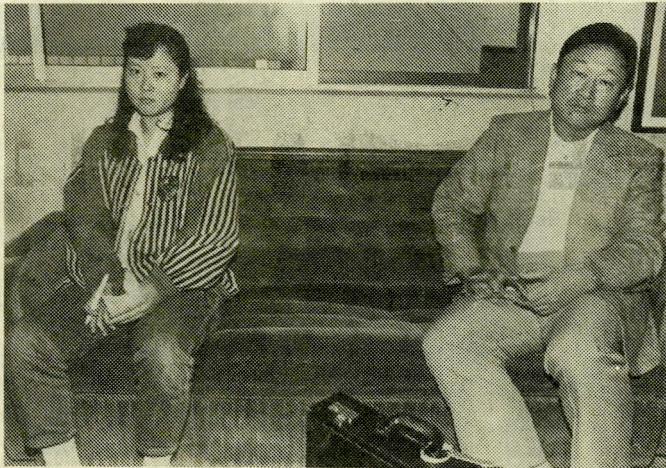
US마그네틱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재미동포 기업주가 여성노동자들의 손에 붙잡혀 경찰에 잡혀졌다.

1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183호실에서 임금체불 뒤 이 호텔에 숨어 지내오던 인천시 북구 약전동 US마그네틱 회사 사장 폴 김(58)씨가 이 회사 여성노동자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6월23일 종업원 1백40여명의 4·5·6월 석달치 월급과 상여금 등 1억5천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뒤 미국으로 달아나 노동부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홍미화(24·여)씨 등 이 회사 노동자 13명은 김씨가 지난달 18일 입국, 이 호텔에 숨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날 오전 호텔방을 덮쳤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남경찰서 형사계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인천북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배됐다 2일 노동자들에게 붙잡힌 US마그네틱사장 폴 김(58·오른쪽)씨가 노조위원장 홍미화(24)씨와 함께 강남경찰서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부 지방노동사무소로 넘겨졌다.

전자제품 제조·수출회사인 US마그네틱은 지난 83년 종업원 30명과 자본금 6억5천만원으로 설립된 뒤 7년 사이에 종업원 2백50명, 매출액 1천만달러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88년 6월

노조가 설립되자 김 사장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자본철수 시기를 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US마그네틱은 사장이 임금체불후 사라진 뒤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종업원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며 15

명의 여성노조원들만 남아 농성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지난 7월11일부터 회사건물을 점거한 채 밤샘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노동부와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항의농성을 벌이러 갔던 노조사무장 이영미(26)씨와 문화부장 문미진(22)씨가 사무실 셔터문을 찢으려다

렸다는 이유로 폭력과 기물파괴